

호응도 떨어지는 선전물

보도기획...양캠퍼스 대자보 실태

우리나라 대학에 대자보가 본격적으로 나붙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부터이다. 그 이후 대자보가 활성화된 이유는 시기시기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히 밝힐 수 있다는 점과, 내용면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들을 큰글자 쉬운말로 나타내 선전선동의 효과가 매우 컸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착되어온 대자보 문화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운영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서울□

현재 서울캠퍼스 대자보판은 각 단과대학 앞과 노천극장앞, 도서관앞에 위치해 있다.

학내 대자보는 현재 일정등 시기가 지난 대자보로 인해 제거가 안되고 있으며 대자보판의 위치가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는 곳에 있지 않아 그나마 모자란 대자보판의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일정이 지난 대자보는 학생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위에 겹쳐서 붙여 그 쓰레기의 양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총학생회 선전부에서는 시기가 지난 대자보 떼어내기 운동을 서서히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 족한 대자보판으로 인해 문리대 선전부의 경우 임의적으로 대자보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다.

한편 대자보판의 열악함, 시일 지난 대자보의 처리미비에 그 내용성에 있어서도 타대와 비교해 볼때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학내에 비치되어 있는 대자보판이 모자랄 정도로 대자보들은 예전에 비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나 내용성에서는 단순히 동문회, 향우회등 간단한 소식을 만으로 대자보판과 각 건물 벽들을 채우고 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잘 안 읽는 이유는 내용과 단어가 너무 과격하거나 어렵고, 별 변화가 없는 폭력형의 내용이 많기때문이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량해진 색채와 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

현재 수원캠퍼스에는 각단대및 학생회관에 10여개의 대자보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외국어교육관 앞 대자보판의 경우 학교 기관인 교무처, 학생처등에서 학생들이

면이 사실상 대자보판구실을 하는 등 건물외벽과 창문등 곳곳에 많은 양의 숫자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때 대자보판의 숫자는 상당히 모자랄뿐만 아니라 그 시설역시 상당히 허술해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면 대자보가 떨어지기 일췌인 것이다. 이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교의 대자보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아리소개나 동문모임 선전의 내용이 주된내용으로 시기시기에 알맞은 선전을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다는 대자보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나붙는 시기세태에 대한 정세분석 대자보 역시 학생들의 무관심등으로 인해 과거에 흔히 볼 수 있던 대자보 상의 논쟁등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러나 다른 학교의 예로 연세대학의 경우 대자보상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날마다 소위 '반박대자보'들을 통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대자보 상의 논쟁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곧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대자보에 무관심한 요즘의 세태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대자보 문화는 대자보가 처음 우리나라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70년대 말부터 10여년간 대학문화의 꽃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본교의 대자보운영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교측의 시설부족, 학생들의 무관심과 그것된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학교·학생의 대자보운영 담당부서 설치 및 입장이 다르거나 자신이 부질지라 없다고 해서 남의 것을 찢어버리는 등의 그릇된 행동에서 탈피해 서로의 선전과 의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올바른 대자보 문화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재부)

“그대의 희생값지게 하리라”

故 이수병동문 16주기 추모제 지상사진 보도



“선배의 뜻을 따라” 추모제에 참석한 학생들이 영정을 보며 구호를 외치고있다

지난 8일 수원캠퍼스 이공교 육관 앞 이수병광장(구)동일광에서 '애국혁명열사 이수병선생 1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온몸을 던져 독재에 항거하신 이수병선생. 그분의 사상, 그분의 실천을 배우면서 진정한 경화인의 참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이에 본고는 이수병선생의 추모제를 통해 오늘의 현실에서 선배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고민과 실천의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사진 기획전을 기획한다.

(편집자註)



파소의 억압 뚫고 가자 / 해방의 세상으로
(이날 강연회를 가졌던 문익환 목사의 모습)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외쳐보는 우리들의 염원
(2천여명의 내외 귀빈과 학생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단순한 소식전달 역할밖에 못해 시설확충·내용개발등 활성화 시급

예년의 경우 대자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그 내용성은 일부의 단순한 학회지보다도 앞선 정도 있었다 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대자보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그러나 현재 교내 대자보문화 현상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점은 바로 학생들의 무관심일 것이다.

에게 공고할 사항이 있을때 사용하는 대자보판, 총학생회용 대자보판등 특정단체의 대자보 또는 공고만을 붙일 수 있는 대자보판 외의 모든 대자보판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게시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공과대학관의 오른쪽벽면과 산업대학관 왼쪽벽

면이 사실상 대자보판구실을 하는 등 건물외벽과 창문등 곳곳에 많은 양의 숫자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때 대자보판의 숫자는 상당히 모자랄뿐만 아니라 그 시설역시 상당히 허술해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면 대자보가 떨어지기 일췌인 것이다. 이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교의 대자보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아리소개나 동문모임 선전의 내용이 주된내용으로 시기시기에 알맞은 선전을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다는 대자보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나붙는 시기세태에 대한 정세분석 대자보 역시 학생들의 무관심등으로 인해 과거에 흔히 볼 수 있던 대자보 상의 논쟁등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러나 다른 학교의 예로 연세대학의 경우 대자보상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날마다 소위 '반박대자보'들을 통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대자보 상의 논쟁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곧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대자보에 무관심한 요즘의 세태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내 주차문제

▼교내 주차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공과대 돌다방앞에서 한편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권복지위원회 주차단속 학생이, 주차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차주인 교수가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이...”라며 그 학생을 “잘못된 아이 꾸짖듯”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원래 취지는 외부차량과 학생자가용등을 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벗어나 강의를 하러온 교수들의 차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단속주체들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단순히 단속 학생들의 무지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하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주차문제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갖은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구성원 모두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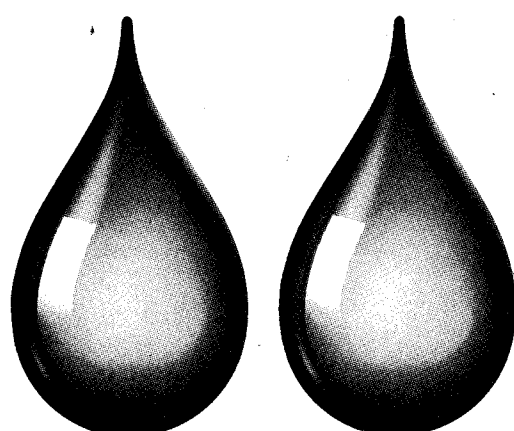
▼지금 학내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들은 모두가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서만 모든 문제를 풀려 하고 있는 듯하다. 주차문제도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개별화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이 틀림없다. 현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일 수 밖에 없다. 주차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복지회관건립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차량출입 및 주차에 주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통일의 깃발과 민족해방의 북소리를 듣는가
고향사자여 /
(수원 학생회관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는 장면)

(방현기 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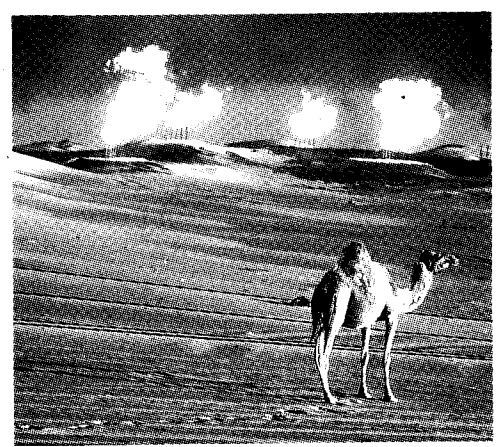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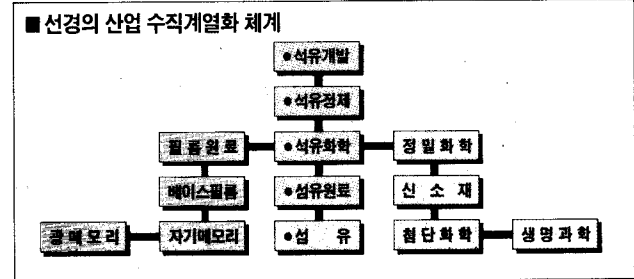


석유 한방울로 부터 선경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인류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유는 에너지로써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됨으로써 현대산업의 총아가 되었습니다. 선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석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선경은 산유국의 꿈을 기우며 해외유전개발에 앞장서 북에센 마린, 유전, 남미 에콰도르 B-12 광구, 미얀마 블록 C 광구등을 개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선경은 국내 최초로 '석유에서 섬유까지'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경의 수직계열화는 석유 및 석유화학 기초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인 섬유 및 신소재분야, 배이스필름, 컴퓨터 테이프 등 메모리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일관 생산체계를 말합니다.

이로써 선경은 21세기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가 함께 공존공영해야 할 21세기. 다가올 그날을 위하여 선경은 석유 한 방울로 부터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텍·세라믹위커칼·선경건설·(주)유공·(주)유공상사·유공해운